

기록과 함께 달린다...후반기 '전설의 이름' 새긴다

‘최초’ 향한 KIA의 진군...후반기 주목되는 기록들

‘V12’ 저력 투수 왕국 명가 증명...KBO 역대 최초 3만5천 탈삼진 ‘-194’
양현종 11시즌 연속 100탈삼진 ‘...ing’·최형우 2천600안타 ‘-63’ 도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025 시즌 후반기, 또 한 번 역사를 써 내려간다. 개인 통산 대기록부터 팀 통산 이정표, 그리고 리그 최초의 금자탑까지. 순위 경쟁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키워드는 ‘기록’이다. 타이거즈는 지금, 숫자로 존재감을 증명하고 있다.

KIA라는 이름, 곧 역사
구단 통산 기록도 초읽기

KIA는 후반기 들어 구단 차원에서 리그 역사를 다시 세우기 직전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탈삼진 부문이다. 지금까지 전신 해태를 포함한 KIA 투수진이 누적한 탈삼진은 3만4천806개이다. 후반기 중 194개만 더하면 KBO 역대 최초로 ‘3만5천 탈삼진’이라는 금자탑을 쌓게 된다. 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마운드 전통의 깊이를 상징하는 지표다.

타선도 뜻깊은 이정표를 남길 참이다. KIA는 현재까지 팀 통산 4천800홀런 달성까지 22개만을 남겨뒀다. 이 기록이 완성되면 KBO 리그 역사상 두 번째로 해당 고지에 오르게 된다. 올 시즌 막강한 팀 장타 흐름을 감안하면, 기록 돌파는 시간문제다.

또한, 루타 부문에서는 7만5천 루타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팀 누적 루타 수는 현재 7만4천619개로, 후반기 중 381개만 더하면 된다. 이 역시 리그 역대 두 번째 기록으로, 오랜 시간 팀이 함께 쌓아올린 누적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수치다.

양현종, 그리고 최형우
레전드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KIA의 두 레전드, 최형우와 양현종도 기록의 중심에서 후반기를 맞는다.

올 시즌 전성기 못지않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최형우는 ▲2천300경기 출장(역대 3번째, -36) ▲4천400루타(최초, -59) ▲2천600안타(최초, -63) 등 의미 있는 대기록을 하나씩 눈앞에 두고 있다. 또 ▲550개의 2루타(최초, -13) ▲1천300개의 4사구(3번째, -3) ▲1천200개의 4구(2번째, -20) 등 타석에서의 끈질긴 집착력을 증명하는 지표들에서도 새 이정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현역 선수 중 이처럼 다양한 부문에서 기록을 동시에 쌓아가는 타자는 드물다.

양현종은 투수로서 한국 야구의 전설적인 족적을 남기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한 이닝은 2천600이닝(역대 2번째)에 20이닝 남짓 남겨두고 있다. 특히 탈삼진은 2천207개 돌파에 51개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 수치는 KBO 리그 역대 최초로, 그 자체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숫자다. 여기에 12시즌 연속 100이닝(역대 2번째), 11시즌 연속 100탈삼진(최초) 기록도 이어가고 있다. 한 사람의 꾸준함이 팀과 리그의 역사가 된 셈이다.

뒷문도 묵직하다...정해영·조상우의 도전

KIA 볼펜진도 후반기 의미 있는 기록들에 도전하고 있다.

마무리 투수 정해영은 현재까지 개인 통산 144세이브를 기록 중이다. 후반기 중 150세이브 고지에 오르면 KBO 통산 12번째 기록이 된다. 또한, 5시즌 연속 50경기 출장이라는 안정감의 상징 같은 연속 기록도 사정권에 있다.

전상현 역시 통산 110홀런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까지 101홀런을 기록 중이며, 리그 통산 18번째 진입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조각들...조용하지만 깊은 도전

이외에도 타선 곳곳에는 후반기 기록 달성이 유력한 선수들이 포진해 있다.

박찬호는 7시즌 연속 100안타, 4시즌 연속 20도루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흐름에 있다.

전반기까지 88안타와 16도루를 기록하며, 후반기 타격감 유지 여부에 따라 두 개의 연속 기록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통산 500득점 고지도 167개만을 남겨두고 있어 KIA 구단 8번째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김선빈은 9시즌 연속 100안타와 통산 1천700안타와 2천100루타, 고종욱은 통산 1천안타와 500득점, 나성범은 통산 3천루타와 350 2루타 달성을 각각 눈앞에 두고 있다. 제 몫을 해내는 이들의 기록은 팀 안에서의 축적된 시간과 공헌도를 상징한다.

2025년 후반기, KIA 타이거즈는 단순한 순위 경쟁을 넘어 역사의 문턱에서 있다.

팀이 쌓아온 시간, 선수들이 일군 꾸준함이 하나씩 자가 되어 다가오는 시점이다.

/주홍철 기자

프로골퍼 박현경·배우 김규리 승리기원 시구

18·20일 NC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18일과 20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NC와의 홈 경기에 팬심을 사로잡을 특별한 시구자들을 초청한다.

먼저 18일엔 프로골퍼 ‘큐티폴’ 박현경이 승리를 기원하는 시구를 맡는다. 2019년 프로 무대에 데뷔한 박현경은 KPG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로 투어 통산 8승을 기록 중이다.

박현경은 “고향이 전라도라 저를 비롯해 가

족 모두가 KIA를 열렬히 응원하는 팬”이라며 “응원하는 팀의 시구를 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이번에도 타이거즈가 최정상에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20일은 배우 김규리가 시구자로 나선다. 김규리는 오는 8월30일부터 목포 등지에서 열리는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전남의 예술 자산과 관광 자원을 소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김규리는 “작년 한국시리즈 우승팀 KIA의



프로골퍼 박현경

시구를 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선수단 모두가 힘을 모아 멋진 경기를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 올해에도 꼭 우승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배우 김규리

/주홍철 기자



광주장애인체육 제2기 발전위원회 박상규 부위원장이 광주장애인태권도협회 소속 최덕영(운암중 3년)과 임지호(문성중 1년) 선수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시장애인체육 제2기 발전위원회 장애학생 태권도 꿈나무 격려금 전달

광주시장애인체육 제2기 발전위원회(위원장 정선교 ㈜대명외식산업 대표이사)가 장애학생 태권도 선수 육성 지원을 위한 격려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16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전달식에는 김현성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박상규 발전위원회 추진부위원장 (㈜경서/EQ구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장홍배 광주시장애인태권도협회 전무이사, 김상진 감독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격려금은 광주시장애인태권도협회 소

속 최덕영(운암중 3년), 임지호(문성중 1년) 선수에게 전달됐다.

태권도 공인2단인 최덕영과 임지호는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광주장애인태권도 차세대 주역으로 주목 받고 있다.

김현성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광주장애인태권도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주시는 정선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발전위원회 격려금이 유망주 육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함평군장애인체육회 오늘 공식 출범

함평군장애인체육회가 18일 함평군청 3층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전남 22개 시·군·군에 19번째로 출범하는 함평군장애인체육회 출범으로 함평군 장애인체육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이날 총회에는 이상의 함평군수를 비롯해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함평군장애인체육회 임직

원 등이 참석해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다진다.

함평군장애인체육회는 2020년 3월 함평군지체장애인협회의 논의로 시작돼 2021-2022년의 설립 건의, 2024년 간담회와 벤치마킹, 올해 초 설립준비위원회 실무회의 등을 거쳐 약 5년간 준비 끝에 공식 출범하게 됐다.

함평군장애인체육회 출범으로 이제 장애인체육회 미시립 지자체는 구례, 화순, 신안군 등 3곳만 남았다.

/박희중 기자

한국 여자축구 20년 만에 동아시아 챔프 복귀

지소연 PK 결승골, 대만戰 2-0
中·日과 팀간 전적 다득점 앞서

한국 여자축구가 20년 만에 동아시아 챔피언 자리에 복귀했다.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 대표팀은 지난 1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안컵) 여자부 마지막 3차전에서 후반 터진 지소연(시애틀 레인)의 페널티킥 결승 골을 앞세워 대만에 2-0 승리를 거뒀다.

앞서 중국과 2-2, 일본과 1-1로 비긴 한국은 승점 5를 쌓아 이날 앞선 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긴 중국과 일본을 승점 동률 팀 간 경기의 다득점(한국 3골, 중국 2골, 일본 1골)에서 앞서며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질 뻔했던 앞선 두 경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격해 넣은 동점 골들이 결과적으로 우승에 결정적이었다.

한국이 동아시아안에서 우승한 건 여자부 대회가 처음 열린 2005년 대회 이후 20년 만이다. 그간 일본과 북한이 동아시아안 챔피언 타이틀을 나눠 가졌다.

지난해 10월 여자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지난 1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안컵) 여자부 대한민국 대 대만 경기. 2대 0으로 승리하며 우승한 대한민국 대표팀이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상우 감독은 9개월 만에 우승을 지휘하며 지도력을 증명해냈다.

34세 베테랑 지소연은 A대표팀에서 처음으로 공식 대회 우승을 경험했다.

한국은 대만과 상대 전적에서 15승 2무 4패로 격차를 벌렸다. 2001년부터 이어진 맞대결 연속 행진을 15경기로 연장했다.

한국은 우승 상금 7만 달러(약 9천700만원)를 가져갔다.

이번 대회 2골을 넣은 장승기가 대회 최우수 선수(MVP)로, 김민정은 최우수 골키퍼로 선정됐다. 일본의 이시카와 리운은 최우수 수비수로 뽑혔고, 득점상은 3골을 터뜨린 중국의 사오프진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